

《고려사절요》

국내정쟁이 대외적 성과를 망친 사례, 윤관의 동북 9성 개척

1109년 7월 전장(戰場)에서 귀환하는 윤관의 마음은 당혹스러웠다. 어찌면 그리 변덕스러울 수 있단 말인가. 불과 1년 전 여진족을 정벌하고 개선했을 때 조정은 그들을 위해 수도인 개경 도로 좌우에 병사들을 도열시키고 북을 치며 나팔을 불게 하였다. 궁궐인 문덕전(文德殿)에 이르렀을 때는 국왕 예종이 친히 나와 개선장군들을 어탑(御榻) 가까이 오르게 하고 전투의 노고를 치하했었다.

글 박현모

“중로(中路)에서 장군의 부월(斧鉞)을 거두다니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딴습니까?” 부원수 오연총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두 달 전인 1109년 5월의 어느 여름날, 왕은 문하시중(중1품)이던 윤관을 불러 “지금 적의 무리가 우리 강토를 침범해 백성들을 노략질하는 바, 그대는 종묘와 사직과 구릉에 승전을 빌고, 급히 나아가 국가의 위급함을 구하라”며 부월, 즉 왕의 도끼를 손수 내려주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소환 명령을 내리더니 이제는 귀경길에 오른 최고사령관으로부터 지휘명령권의 상징인 그 도끼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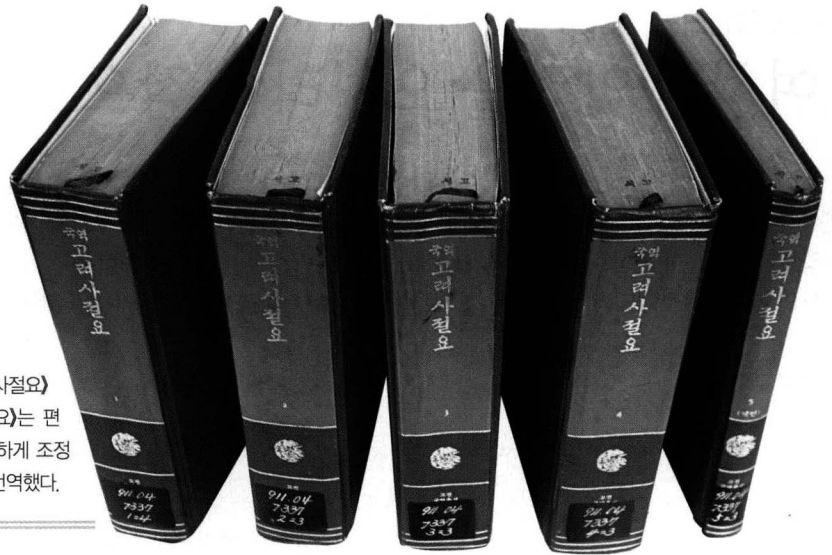
“그나마 전옥서(典獄署)에서 나오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아시오.” 승선(承宣) 심후의 말이었다. 최고 의정기관인 중서성에서 윤관과 오연총의 책임을 물어 패전(敗戰)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걸 국왕이 겨우 막았다는 것이었다. ‘패전의 책임’ 이라니, 도대체 뭘 보고 전쟁에 패했다는 건가. 물론 포위된 길주성을 구원하러 가던 오연총의 군대가 적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한 건 사실이다. 그 때문에 동계의 병마원수인 윤관 자신이 급히 서북쪽으로 이동했고, 지금 적군과 대치 중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번 오연총의 패배는 그 이전의 크고 작은 전투의 패퇴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것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가 아닌가.

동북 9성 개척한 윤관의 당혹감

문제는 개경의 주화론자(主和論者)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차라리 9성을 돌려주자고 말했다. 1107년 10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윤관 등이 17만 군사를 이끌고 개척한 함주·영주·웅주·공협진 등을 여진족에게 주어버리자는 것이었다. “아홉 개의 성은 거리가 너무 멀고, 골짜기와 동네가 깊어서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의 복병에게 자주 공격 받고 있으니” 여진족에게 반환하고 화평을 얻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하지만 양보를 통한 평화, 그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이웃나라인 송(宋)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문신(文臣)이 군권(軍權)을 장악했던 송나라는 이웃나라에게 양보를 하거나 유화책을 써서 전쟁을 회피하곤 했다.

1044년에 송은 서하(西夏)에게 많은 돈을 주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막대한 돈과 비단으로 거란과의 ‘평화를 사기도 했다.’ 결국, 어마어마한 ‘평화비용’에 시달리던 송나라가 군사적 무기력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황하 이남으로 밀려나던 것을 불과 십여 년 전에 목도하지 않았던가.



윤관의 동북9성 개척과 예종시대의 주전론-주화론의 대립은 《고려사절요》에 잘 나와 있다. 세종의 명을 받아 김종서 등이 찬술한 《고려사절요》는 편년체의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기전체 방식의 《고려사》보다 생생하게 조정의 논의를 이해할 수 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68년에 5권으로 번역했다.

국제정세의 대전환기, 고려가 맞은 기회와 좌절

윤관을 정말로 안타깝게 한 것은 국왕 예종의 우유부단함이었다. 부왕 숙종의 북벌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한 예종은 학문을 좋아했지만 결단력이 부족한 임금이었다.

12세기 초 중원대륙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한족의 송나라와 거란족의 요나라가 쇠퇴하면서 자연 힘의 공백이 생겼다. 오백년 전 수나라가 망했을 때처럼 만주의 큰 평원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륙의 정세를 예의주시하던 숙종이 태조 왕건의 북벌정책을 재천명한 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1104년 숙종이 북쪽 오랑캐를 제압할 방안을 물었을 때 윤관은 전투체제의 혁신을 제안했다. 윤관에 따르면 “보병(步兵) 중심의 우리 군대가 기동력이 뛰어난 적들의 기병(騎兵)을 막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고려군의 강점인 수성(守城)능력에다 공격(攻擊)능력을 추가한 새로운 전투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기(神騎)와 신보(神步), 그리고 항마군(降魔軍)으로 구성된 별무반(別武班)이었다.

숙종은 또한 항마군을 중심으로 절의 승려들을 조직해 유사시 전투부대로 전환할 수 있게 했으며, 문무양반과 여러 군영의 병사들을 일년 내내 훈련하게 했다. 비록 숙종 자신은 그 결과를 못보고 “군사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수레 안에서” 사망했지만, 그 후로 고려의 군사력은 크게 강화되었으며, 1107년의 9성 개척은 바로 그 결실이었다.

그러나 조정의 다수 신료들은 여전히 윤관 등의 북벌론을 반대하고 있었다. 수차례 거란과의 전쟁이 마무리되었으니, 이젠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며 개척한 9성을 여진족에게 내어주더라도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의대부 김연은 “땅을 취하는 것은 본래 백성을 기르기 위함인데, 지금 9성을 놓고 여진족과 다투어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김연은 또한 국제정세로 보더라도 “9

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삼한(三韓·우리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가 만약 동쪽으로 여진족과 맞서고 북쪽으로 거란을 대적해야 할 경우” 국력의 소진이 클 것이니, 차라리 그 땅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동쪽 국경을 안정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물론 김연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무릇 나라 일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때가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는 법이다. 이때가 아니면 잃어버린 고구려의 고토를 언제 다시 찾겠으며, 천혜의 방벽 압록강과 두만강을 양보한다면 무슨 수로 국경을 지키겠는가. 하지만 이 모든 윤관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예종은 김연의 손을 들어주었고, 윤관의 손에서 도끼를 박탈하고 말았다.

함석헌의 9성 반환 평가

이때의 9성 반환을 두고 함석헌 선생은 “모처럼 일어나던 북진운동이 그만 되서리를 맞은 사건”이라고 했다. 윤관이 함경남북도 지방을 평정하여 아홉 성을 쌓고 남쪽 지방의 6만 호를 옮기고, 두만강을 건너 지금의 간도지방까지 진출하여 “역사의 바늘이 또다시 대조선 부흥으로 놓인 듯” 했다. 그런데 동북 9성이라는 북진정책의 교두보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몇 백 년 만에 찾아온 국가융성의 기회를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함석헌은 이 사건의 이면에 “윤관파를 거꾸르러려 한 썩어진 선비들의 시기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인들은 물론이고 척준경과 같은 장수들로부터도 절대적 지지를 받는 윤관을 견제하려는 세력들의 농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힘써 이론 대외적 성과가 국내정정과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뼈아픈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때 잃어버린 땅은 400여 년이 지난 조선의 세종 때 가서야 되찾을 수 있었다. ㉔

박현모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이며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연구실장이다. 저서로는 《정치가 정조》(세종의 수성(守城) 리더십) 등이 있다.